

## 로코코시대 헤어스타일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업스타일에 관한 연구

신 부 섭

계명문화대학 뷰티코디네이션과

### A Study on the Upstyle Applied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Hairstyle in Rococo Ages

Bu-Seop Shin

Dept. of Beauty Coordination, Keimyung College  
(2006. 4. 15. 접수)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revive modernized upstyle technique by analyzing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hairstyle in Rococo ages. As a methodology, book-form literatures, periodicals, theses, and photographic materials including portraits related to Rococo ages, which had been studied from the time when Louis XIV died, to the advent of French Revolution in 1789, reaching a period of seventy-four years, were reviewed. Those materials for hairstyle revealed in modern fashion included related literatures and theses and photographs involving designers' works in fashion magazines, photographs of hairstylists' works, and movies with background of Rococo ages. Based on such materials,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hairstyle in Rococo ages were studied for modernized upstyle. First,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hairstyle in Rococo ages were divided and analyzed in Fontnagne style, in Pompadour style Marie Antoinette style. Second, this study researched those examples wherein the characteristics of Rococo's hairstyle were expressed in modernized style, and manufactured modern upstyle works based on the research. Rococo ages featured various fashion trends and created sensitive and magnificent style with romantic theme in art field. Also, since the hairstyle in Rococo ages featured various styles that were magniloquent and magnificent, it is revived in today's hair shows and fashion shows in the same way or altered way.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help understand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hairstyle in Rococo ages and shed light on study on modern hairstyle in more various perspectives.

**Key words** : 로코코시대(Rococo ages), 헤어스타일(Hairstyle), 업스타일(Upstyle)

## I. 서 론

### 1. 연구의 목적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때부터 헤어스타일의 역사는 여러 형태로 존재하였고 의복의 형태와 함께 다양하게

표현되어 왔다. 신체를 장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얼굴의 형태나 의복의 형태에 따라 변화되었던 헤어스타일은 원시시대에는 자기 보호적 기능이 강하였으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성별, 연령과 신분, 계급 등에 의해 적용되었으며, 현대에는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헤어스타일에 관한 새로운 시각과 관심이 많은 헤어스타일리스트들에 의해 독특하고 개성적인 방식으로 변천 발전되어 매우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Corresponding author: Bu-Seop Shin  
E-mail: buseops@hanmail.net

헤어스타일의 변화는 사람의 이미지를 개선하거나 감소시키기도 하는데 헤어스타일의 변화는 모발이라는 소재에 일련의 조형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 헤어스타일의 조형성은 헤어 자체를 조형적으로 분석하여 구조적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이미지의 형태로 형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헤어스타일의 조형적 특성 중 입체적인 형태의 조형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스타일은 로코코(Rococo)시대의 헤어스타일로 다양한 형태의 과장되고 확장된 조형으로 전개되었다.

로코코시대 헤어스타일은 다른 시대보다 다양한 유행 경향이 나타났으며 예술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로코코시대의 예술은 로맨틱한 주제의 감각적이고 화려한 양식으로, 장식과다의 비구형적 장식과 좌우 불균형의 곡선을 많이 사용하였고 이 예술장식은 헤어스타일에도 나타나 바로크(Baroque)시대의 적절한 조화와 비례의 단순한 헤어스타일 관념에서 탈피하여 창조적이며, 기교적인 장식으로 변모하였다.

로코코시대 헤어스타일의 장식 과다의 비구형적인 형태와 좌우불균형의 창조적 형태는 헤어스타일리스트들에게 많은 영감과 새로운 모티브를 주며 헤어쇼, 패션쇼 등에서 그대로 재현되거나 변형된 스타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므로 로코코시대의 스타일은 새로운 유형의 업스타일에 좋은 모티브가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로코코시대의 패션이나 헤어스타일에 대한 연구에 국한되어 로코코시대 헤어스타일을 응용한 업스타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sup>14)</sup>.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로코코시대의 헤어스타일이 어떠한 문화 예술적 기반에서 표현되었는지를 분석, 분류하여 당시의 모습 그대로 재현하기보다는 현대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재적용하여 새로운 업스타일작품을 제시, 창작하여 하나의 시도로 제안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논문은 로코코시대 헤어스타일의 특성고찰에 따른 현대적 사례와 현대적 기법 적용 연구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로코코시대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전반적인 문화 예술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로코코시대 헤어스타일의 조형적 특성에서는 조형적 특성을 형태에 따라 분류하여 풍타주 스타일, 풍파드르 스타일, 마리 앙뜨와네트 스타일로 분석하였다.

셋째, 위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 패션에 나타난

로코코시대 헤어스타일의 선행 사례에 대해 연구하고 로코코시대 조형적 특성으로 분류한 헤어스타일을 장식은 배제하고 형태를 강조한 현대적 업스타일을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하여 이미지를 제시하고 그 이미지를 실제 모델에게 적용하여 각각의 헤어스타일의 특징을 표현한 작품을 창작하여 이를 사진으로 제시하였다.

로코코시대 헤어스타일을 파악하기위한 참고문헌을 살펴보면 첫째로 헤어스타일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관련 단행본<sup>5-10)</sup>, 둘째로 의상과 함께 헤어스타일을 다룬 연구 문헌류<sup>11-14)</sup>, 셋째로 문화적 배경을 연구한 문헌류<sup>15-16)</sup>, 넷째로 현대 패션에 나타난 헤어스타일의 사례에 대한 자료는 전문 정기간행물<sup>17-18)</sup>, 인터넷의 관련 자료<sup>19)</sup>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연구는 루이14세(Louis XIV)가 서거한 시기(1715)부터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일어나기까지의 74년의 기간을 범위로 정하였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실제 그림원본이 아닌 사진자료를 통한 분석이므로 형태의 정확성을 분석함에 있어 다소 한계점이 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로코코예술은 루이14세의 서거 후부터 프랑스혁명까지 프랑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유럽의 예술 양식으로 바로크시대의 딱딱한 형식과 엄격함에서 벗어나 감성적이며 쾌락의 추구로 인간에게 내재된 감정들이 자유로이 표출되었으며 이러한 감정들은 로코코예술양식의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sup>20)</sup>. 로코코양식은 먼저 프랑스에서 일어나 프랑스 왕권의 흥성과 함께 전 유럽에 보급되었다. 프랑스는 이전까지의 형식적이고 엄격한 규칙을 버리고 감성적이며 쾌락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프랑스 문화는 전체 유럽 문명이 되었으며, 유럽의 귀족들은 프랑스어를 사용했고 프랑스 문화를 추종하여 예술도 패션도 사교예절도 모두 프랑스식 일색이 되었다. 대부분의 원서(原書)가 프랑스어로 인쇄되었으며, 파리는 세계문화예술의 중심도시가 되었다. 이러한 프랑스 문화의 배경은 궁정귀족과 왕의 애첩들의 취미생활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본격적인 것은 루이15세 때였다고 역사가들은 규정하고 있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무능하였지만 예술에 관하여는 명확하고 확실한 개성과 품위 있는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

로코코예술은 인간에게 내재된 미적감성을 자극하여 새로운 미적양식을 형성하여 감각적이고 화려한 예술양식이 태동될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했다. 미술에서 출발

한 로코코는 프랑스어의 로카이유(rocaille)에 어원을 두고 있으며 로카이유(rocaille)와 꼬기유(coguille) 두 단어가 합쳐진 것으로 로카이유(rocaille)는 자갈, 꼬기유(coguille)는 조개껍질을 의미했다. 이는 정원의 장식으로 사용된 조개껍질과 돌의 곡선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두 대상은 르네상스시대에 이태리등지에서 장식미술의 주제로 널리 애용되었는데 1723년 파리로 이주해온 이태리인 메소니에(Aurele Meissonier; AD 1693-1750)가 소개한 목세공 장롱제작에 사용한 것이 계기가 되어 프랑스에서 정착하게 되었다<sup>21)</sup>.

로코코예술은 어원의 의미에 걸맞게 곡선의 감각으로 우아하고 여성적이며 귀족적이고 실내적인 특성을 지녔다. 즉 리드미컬한 곡선이 주제를 이루며 밝고 화려하고 유희적이고 번덕스러운 매력을 그러나 동시에 부드럽고 내면적인 성격을 지닌 세련된 귀족 취미를 바탕으로 하였다. 따라서 로코코는 외형상의 양식이기보다는 장식의 성격을 개념화한 것으로 예술과 생활에 있어 자유분방하고 파격적인 것을 요구했다.

로코코시대에는 의상의 예술성에 가치를 두어 의상을 어떻게 멋지게 입을 수 있는지가 중요했으며, 이것은 개인의 문화 예술의 수준을 가늠케 하는 척도가 된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새로운 헤어스타일이나 의상을 착용했을 때는 반드시 초상화를 그렸는데, 의상의 표현방식에 중점을 두어 옷감의 느낌, 주름의 음영(陰影), 프릴 장식의 부드러움 등이 얼마나 훌륭하게 묘사되었는가는 초상화 인물들의 문화 예술 수준의 평가적인 요소들이었다.

나폴레옹시대(1804-1870) 고전주의 입장에서는 경멸의 의미가 담겨있는 로코코예술양식은 프랑스의 살롱을 중심으로 각지로 번졌으며 제각기 독자적인 양식으로 발전했다. 살롱의 실내장식인 유연한 모티브들의 배치는 세련된 감각과 조화된 곡선미로 표현하였으며 장식적이고 귀족적인 우아한 취미가 그대로 양식개념으로 확대 되었다.

로코코장식예술은 회화, 실내장식, 조각, 공예 모든 분야에서 사랑스런 곡선과 파스텔 색조를 사용하여 장식미가 돋보이면서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했다. 실내의 각 부분이나 가구의 형태 등에 조개 모양이나 아칸서스 무늬가 도입되고 그것들의 조합이라고 할 만한 아름답고 화려한 곡선의 활용과 좌우 균형을 파괴한 자유로움이 장식적으로 문양화된 모티브와 자연스런 모티브가 함께 사용되었다. 이런 곡선을 활용하여 건축가들은 실내 공간 자체를 타원형 또는 다각형의 원형적 공간 연출로 처리하고 벽과 천장의 연결부분과 벽과 벽의 연결 부분에도 분절이 보이지 않는 구조를 고안했다. 직선과 직

각을 가능한 배제하여 부드러운 곡선이 자유롭게 교차하도록 만들고 벽이나 천장의 색채도 담백하고 우아한 색조를 즐겨 사용하였다. 이것은 바로크가 지닌 중후성이나 딱딱한 격식과 다른 경쾌하고 화려한 취향으로 로코코의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예술 감각이 뛰어난 프랑스는 다종다양한 문물이 유입되는 내륙문화의 중계지로서 동인도회사에 의해 중동이나 극동과의 무역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페르시아, 인도, 중국에서 면화와 실크 등의 직물을 수입하고 동양 문화를 접촉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건축, 가구, 도자기 등의 유럽예술 색채나 문양에 있어서도 동양적인 것이 강한 영향을 미쳤다.

이 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문화양식은 살롱에서 비롯되었다. 여성의 세기 또는 여인천하라고까지 했을 정도로 여성이 중심이 된 살롱문화는 프랑스인을 중심으로, 바로크의 호화롭고 웅장한 방에 경직된 에티켓만큼이나 식상해 있었던 문화를 작은 살롱의 친밀함과 안락함으로 변화시켰다. 본래 살롱은 궁정을 생활기반으로 하는 귀족과 부유한 부르주아의 문학과 철학, 음악회, 무도회 등을 위한 사교활동의 장소였으며 당 시대의 지식인, 예술가, 귀족층 인사들을 위한 사교의 장으로 개방되어 자연스럽게 여론의 중심이 되었다. 당시의 계몽주의 사상가인 볼테르(Francois Marie Arouet, 1694-1778),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 몽테스키외(Charles-Louis de Secondat, Baron de La Brède et de Montesquieu 1689-1755)등이 살롱에서 저서를 집필하기도 하였으며 살롱의 성격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다<sup>22)</sup>.

### III. 로코코시대 헤어스타일의 조형적 특성

로코코시대 헤어스타일은 다양한 형태의 과장되고 확장된 조형으로 전개되었던 스타일로 로코코시대 예술양식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다른 시대보다도 다양하게 나타난 로코코시대의 유럽 유행 경향은 예술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로맨틱하고 화려한 예술양식과 곡선형태의 실내장식들이 사회전반에 반영됨으로써 헤어스타일에 영향을 주어 이 시대의 특성인 과다한 장식과 직선을 찾아볼 수 없는 자유롭고 부드러운 곡선이 헤어스타일에도 반영되었다. 또 동인도회사에 의해 중동이나 극동과의 무역으로 동양의 건축물과 가구 등 다양한 문물이 유입되면서 헤어스타일에도 영향을 주어 헤어장식물로 동양풍의 공작 깃털과 원숭이 장식, 나뭇잎 등의 소재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로코코시대 헤어스타일은 초기에는 작은 머리모양으로 낮은 형태였으나 중기로 넘어가면서 건축적이라고 할 만한 높이의 헤어스타일을 유행하였고 그 스타일을 제작하기 위해 철사 틀과 아마(亞麻)나 말털과 양털로 구성된 패드, 크리놀린, 가발등과 파우더와 폼마드가 사용되었다. 또한 다양하고 복잡한 장식물을 덧붙인 헤어스타일로 인해 헤어스타일리스트가 출현하게 되었는데 풍자화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 남성으로 예술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 중 유명한 헤어스타일리스트로는 풍파두르 부인의 헤어스타일리스트로 파리에서는 요리사였다가 직업을 바꾼 레그로 드 루미에르(Legro de rumigny)가 유명했다. 그는 왕의 애첩들과 귀부인들의 헤어스타일을 9년간에 걸쳐 300여종의 스타일을 창작해내었으며 가발과 인형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더욱 유행을 이끌었다. 그리고 ‘프랑스 귀부인의 미용기술(Art de la Coffure des Dames)’이란 책을 저술하였는데 이 책의 내용은 38가지 헤어스타일과 그의 아카데미에 대한 정보, 헤어스타일에 대한 충고와 강의를 담았고 이것은 1769년 미용아카데미의 설립의 토대가 되었으며, 헤어스타일리스트들에게 기술지도서가 되었다. 로코코시대는 새로운 헤어스타일이 생기면 당시의 유명한 귀부인의 이름을 붙여 명명하는 것이 유행하였는데 이는 조형적 특성으로도 동일하게 분류되어진다.

### 1. 풍탕주 스타일

루이14세의 총애를 받은 풍탕주(Fontanges, 1661-1681)는 아름다운 모발의 소유자로 그녀의 모발은 거의 은색으로 보일 정도로 빛났다. 풍탕주 스타일은 풍탕주 후작부인이 루이14세과 사냥을 하는 동안에 헤어스타일이 바람에 흐트러지자 자신의 모발을 가터로 묶은 임시방편의 헤어스타일을 루이14세가 아름답다하며 총애를 하자 궁중의 여인들이 그녀의 스타일을 모방하기 시작하여 유행한 스타일이다.

바로크시대의 풍탕주 스타일은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백색마 또는 레이스에 풀을 뺏았이 먹여 주름을 잡아 두세층의 탑처럼 세우고 철사로 틀을 만들어 이마에서 앞쪽으로 기울게 받친 후 리본, 다이아몬드, 진주 등으로 장식하여 껍 둘레에 좁은 주름을 잡은 것이다. 그러나 바로크시대의 영향을 받은 로코코시대에는 <그림 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온건하고 아름다운 용모와 조화되는 스타일로 앞이마부터 관자놀이부위까지 모발을 빗어 올려 탑에다 꺾을 넣었고 후두부의 모발은 꺾을 넣어 뿔뿔이 보이도록 목 아래쪽으로 흘러나

리게 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오른쪽 어깨로 넘겼다.

### 2. 풍파두르 스타일

풍파두르 부인은 인도회사의 대 주주로서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진 루이15세의 애첩으로 프랑스 재무 장관인 파리스 브라더스(Paris Brothers)에게 고용된 세무 공무원의 딸이었다. 춤, 노래, 연기, 클라비코드 등에 능했으며 식물학자, 정원사, 그림과 조각 등에 다재다능하고 지성과 재색을 겸비한 브루주아 출신인 그녀의 부상은 귀부인들의 동조를 가져왔고 상류계급 귀부인들이 그녀의 화려한 헤어스타일을 모방하였고 이로 인해 그녀의 스타일은 이 시대 부인들의 미를 대표하였다. 시대 정신에 맞도록 교양을 쌓으며 예술전반에 지식을 갖춘 그녀의 취향은 패션뿐 아니라 베르사유궁전의 실내 장식에도 반영되었으며 그녀의 다양한 예술적 취미는 프랑스 문예를 진흥시키는데 큰 힘이 되어 극단이나 소극장 건립뿐 아니라 당대의 화가인 부세, 와토 등 예술가들은 풍파두르 부인의 후원을 받으며 로코코시대의 장식문화를 발전시켰다.

루이15세의 섭정이 시작되면서 헤어스타일은 전두부는 낮아지고 후두부 쪽이 강조되는 풍파두르 스타일이 유행하였는데 특히 1730년대에서 50년대에 이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녀의 스타일은 바로크시대의 풍탕주 명성을 퇴화시켰으며 그 뒤로 유행하여 현재까지도 헤어스타일의 한 종류로 연구되고 있다.

풍파두르 스타일은 후두부가 강조되는 형태로서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페이스 라인은 물론 전체 모발을 이마 위로 쓸어 올려 하나로 탑 포인트(top point)부분에 고정을 한 단정한 헤어스타일로 행사에는 흰색 장밋빛 나는 파우더나 푸른색 파우더를 뿌렸고 조화, 리본, 깃털, 구슬, 진주 보석 등으로 장식하였으며, 이러한 헤어스타일은 얼굴을 축소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스커트가 넓게 퍼져 피라미드형태가 되었다.

### 3. 마리 앙뜨와네트 스타일

마리 앙뜨와네트는 오스트리아 여왕 마리아 테레지아(Maria Theresia, 1717-1780)의 딸로, 루이16세와 결혼하여 루이15세의 사후 즉위하였는데 그녀의 헤어스타일은 레오나르에 의해 다양한 스타일로 표현되었다. 그녀는 로코코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로써 프랑스 혁명으로 루이16세와 함께 사망하기까지 그녀의 헤어스타일은 모든 살롱과 궁정에서 모방되었다. 그녀의 헤어스타일은



<그림 1> 풍탕주 스타일  
Hairstyles of the World, p.68



<그림 2>풍파드르부인  
20000Years of Fashion, p.297



<그림 3>마리아뜨와네트  
Hairstyles of the World, p.78

3가지 유형이 있었다.

첫째, 일상적 스타일은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두부를 볼륨감 있게 빗고, 측두부는 컬로 입체감 있게 하고, 탑 포인트 부분은 부피감 있는 형태를 유지하며 후두부는 많은 컬을 핀으로 고정하고, 내려온 컬들은 목 부분에서 리본으로 묶어 어깨위로 자연스럽게 드리워져 있다. 여기에 파우더와 포마드로 고정하고 그 위에 충분 량의 파우더를 뿌린 후 타조깃털, 화환이나 보라색 리본, 보석, 진주 등으로 장식하여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완성시켰다.

둘째, 특별한 행사의 스타일은 <그림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후두부 부분을 더욱 강조된 형태로서 철사틀과 패드를 이용하여 후두부 부분을 부피감 있게 높게 빗어 리본을 달고, 측두부의 모발로 컬을 하여 귀를 덮고, 귀 뒤로는 타이트한 컬 묶음을 내려 마무리하기 위해 레이시나 캡 등으로 더 높게 올려 화려하고 풍성하게 보이도록 하였다.

셋째, 출산 후 모발이 빠진 마리 앙뜨와네트를 위해 레오나르가 고안한 ‘어리서(herrison)’라 불리는 헤어



<그림 4>마리아뜨와네트 Hairstyles of the World, p.83



<그림 5>마리아뜨와네트 Hairstyles of the World, p.83

스타일은 80년대 유행한 스타일로 <그림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얼굴주변에 컬 한 모발을 넓게 한 후 리본으로 장식하고 후두부에는 모발을 늘어뜨려 모발이 풍성하게 보이도록 하였다. 마리 앙뜨와네트 스타일이 유행 했던 시기에는 높이와 장식과 기교가 가능성의 극한점까지 도달하였으며 사상 최초의 황실 디자이너 로즈 베르댕을 고용한 그녀의 헤어스타일과 패션스타일은 로코코의 패션문화를 화려하게 장식하며 20년 동안 프랑스 궁중에서 히영과 사치의 표본이 되었다.

#### IV. 로코코시대 헤어스타일의 현대적 사례와 현대적 업스타일로 작품 제작

##### 1. 현대 패션에 표현된 로코코시대 헤어스타일 사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는 정보화 시대로 문학적 다양성과 첨단 과학 기술의 발달로 다문화가 공존하며 나타나고 있다. 현대 패션에서 헤어스타일도 다양



<그림 6>퐁탕주 스타일  
Elle Korea(2003), p.851



<그림 7>퐁파드르 스타일  
Vogue Korea(2005), p.266



<그림 8>마리 앙뜨와네트  
Http://search.yahoo.com

한 형태로 자신의 표현수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 패션에서 표현되고 있는 로코코시대의 헤어스타일은 오늘날의 쇼 스타일의 전형으로 헤어쇼, 패션쇼 등의 특별한 행사에서 그대로 재현되거나 변형된 스타일로 표현되고 있으며 패션디자이너와 헤어스타일리스트에게 많은 영감과 모티브를 제공하여 영화, 잡지, 사진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현대 패션에 표현된 로코코시대 헤어스타일 사례 중 영화에 나타난 것은 1938년에 제작되어 상영된 노마 쉬너 주연의 영화 “마리 앙뜨와네트”, 1942년에 제작된 영화 “문히하우젠”, 1988년에 상영된 영화 “위험한 관계”가 있다. 영화에서는 로코코시대의 전반적인 문화, 예술, 패션, 헤어스타일에 관하여 표현되어 있다.

<그림 6>은 퐁탕주 스타일의 형태를 리본과 함께 장식하여 우아하게 표현된 스타일이고 <그림 7>는 퐁파드르

스타일을 표현한 것으로 측두부를 강조하여 모델의 얼굴이 더욱 작아보이게 표현하였다. <그림 8>은 마리 앙뜨와네트의 어리서 스타일로 모발에 파우더를 사용하여 로코코시대 헤어스타일의 특성을 볼 수 있다.

## 2. 로코코시대 헤어스타일을 현대적 업스타일로 작품 제작

### 1) 작품I - 퐁탕주 스타일 (그림 9-11)

- (1) 헤어스타일 : 로코코시대의 퐁탕주 스타일을 응용하여 모델의 얼굴형과 어울리게 모발을 나누어 현재 유행하고 있는 땅은 모발 스타일을 이용한 업스타일.
- (2) 기법 : back combing. 세 가닥 땀기. 모발을 고무줄로 고정.



<그림 9>작품I 모티브  
Hairstyles of the World, p.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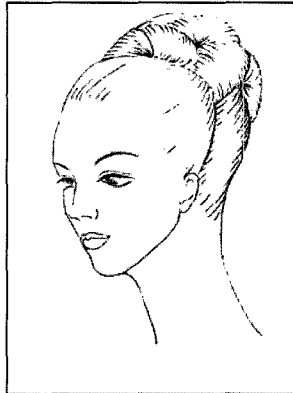
<그림 10>작품I 일러스트



<그림 11>작품I 사진<sup>23)</sup>  
Up & Styling, p.56.



<그림 12>작품II 모티브  
20000Years of Fashion, p.298



<그림 13>작품II 일러스트



<그림 14>작품II 사진<sup>24)</sup>  
Up & Styling, p.90.



<그림 15>작품III 모티브  
Hairstyles of the World, p.84.



<그림 16>작품III 일러스트



<그림 17>작품III 사진<sup>25)</sup>  
Up & Styling, p.77.

## 2) 작품II - 풍파드르 스타일 (그림 12-14)

(1) 헤어스타일 : 로코코시대 풍파드르 스타일을 응용하여 후두부가 강조되도록 겹치기 기법으로 뒷부분의 모발을 고정하고 앞부분의 모발을 이마 위로 빗어 모발을 굽은 꼴로 장식한 스타일.

(2) 기법 : Back combing, 굽은 꼴, 겹치기 기법.

## 3) 작품III - 마리 앙뜨와네트 스타일 (그림 15-17)

(1) 헤어스타일 : 일상적인 마리 앙뜨와네트 스타일로 전두부를 볼륨감 있게 하고 탑 포인트 부분은 헤어피스를 이용하여 꼴을 만들고 목 부분에는 꼴이 된 모발로 장식한 스타일.

(2) 기법 : Back combing, 헤어피스사용, 모발을 고무줄로 고정.

## V. 결 론

한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과 함께 변화되어 오고 있는 헤어스타일은 새롭게 창작된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유래된 것이고 과거의 것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는 현재의 문화, 예술과 함께 인간의 감성에 어울리게 재정립됨으로써 새로운 스타일로 표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세시대 중 가장 화려한 로코코시대 헤어스타일을 조형적 특성으로 분류하여 그 결과를 갖고 현대적인 업스타일 기법으로 재현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로코코시대 헤어스타일 중 풍탕주 스타일은 바로크시대의 딱딱한 격식의 풍성하고 위엄 있는 헤어스타일이 로코코예술의 사랑스런 곡선과 장식적이고 자연스런 영향으로 여성적이고 우아한 스타일로 변화된 스타일이다.

풍파두르 스타일은 후두부가 강조된 형태의 단정한 헤어스타일로 20세기 초에 전 세계적으로 아르누보의 S자형 실루엣이 유행하면서 풍파두르 스타일이 측두부가 부푼 상태로 다시 회귀하기도 하였다.

마리 앙뜨와네트 스타일은 일상적 스타일과 축제 등 특별한 행사에서 하는 스타일, 그리고 출산 후, 모발이 빠진 마리 앙뜨와네트를 위해 레오나르가 고안한 ‘어리서’라 불리는 헤어스타일로 3가지 유형이 있다.

둘째, 로코코시대 헤어스타일의 특성을 현대 패션에 표현된 사례에 관하여 연구하고 그 특성과 사례를 바탕으로 로코코시대의 헤어스타일을 현대적 업스타일에 응용하여 새로운 유행작품을 창작하였다.

로코코시대는 다른 시대보다도 다양한 유행 경향이 나타났으며 예술분야에서는 로맨틱한 주제로 감각적이고 화려한 예술양식이 태동되면서 헤어스타일 또한 전 시대의 적절한 조화와 비례의 단순한 헤어스타일 관념에서 탈피하여 창조적이며, 화려한 스타일로 변모하며 헤어스타일에 있어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화려하고 복잡하고 기교적 헤어스타일로 인한 전문 미용인이 배출 되었으며 헤어스타일을 소개한 다양한 잡지, 서적 등의 출판과 함께 현대미용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한 시대만을 풍미한 미용문화가 아닌 현 시대의 기교적이고 창조적 결과물로서 헤어디자이너, 헤어스타일리스트, 헤어 아티스트, 헤어드레서로 호칭되는 미용인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인체예술로서의 작품세계를 제공했다.

본 논문을 통하여 로코코시대 헤어스타일의 조형적 특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각도의 현대적인 업스타일 연구가 진행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업스타일을 하는 대부분이 여성이었기에 여성 위주의 로코코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의 헤어스타일을 분석하여 그 외 다른 인물의 헤어스타일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 참고문헌

- 1) 지정아(1999). 18세기 로코코시대의 복식, 헤어, 메이크업 경향에 대한 연구. 대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이혜림(2000). 로코코시대 여성복식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소영진, 송인영(2001). 18세기 로코코양식에 나타난 여성의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 목포과학대학 논문집, 25(1), pp.599-608.
- 4) 안유리(2004). 18세기 로코코 시대의 Hair Fashion의 경향.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2.
- 5) 김희숙, 이은임(1996). 메이크업과 패션. 서울: 수문사. pp.32-36.
- 6) 김춘득(2002). 동서양 미용사. 서울: 현문사, pp.96-108.
- 7) 정홍숙(2003). 서양복식사. 서울: 교문사, pp.268-269.
- 8) Francois, B.(1987). 20,000 Years of Fashion. New York: Abrams, pp.306-308.
- 9) Corson, R.(2001). Fashions in hair. London: Peter Owen, pp.326-397.
- 10) Hairstyles of the World(2003). Singapore: The Pepin Press, pp.62-63.
- 11) 지정아(1999). ‘앞의 글’.
- 12) 이혜림(2000). ‘앞의 글’.
- 13) 소영진, 송인영(2001). ‘앞의 글’, pp.599-608.
- 14) 안유리(2004). ‘앞의 글’.
- 15) 정홍숙(2003). ‘앞의 책’, pp.234-241.
- 16) 체르멩 바쟁(1998), 바로크와 로코코. 김미정 역. 서울: 시공사, pp.182-193.
- 17) Elle Korea(2003). 11월호, p.351.
- 18) Vogue Korea(2005). 11월호, p.266.
- 19) <http://serch.yahoo.com/search/images> 2005.11.26
- 20) 정홍숙. ‘앞의 책’, p.234.
- 21) 배만실(1994). 장식미술사. 서울 : 지문당, p.223.
- 22) 안유리. ‘앞의 글’. p.12.
- 23) 신부섭외(2004). 업 & 스타일링. 서울 : 광문각. p.56.
- 24) 신부섭외(2004). ‘앞의 책’, p.90.
- 25) 신부섭외(2004). ‘앞의 책’, p.77.